

교사-아동의 갈등관계와 아동 행복감의 관계: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재은¹⁾ 이해원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아동의 갈등관계와 아동의 행복감과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2017년 10차년도(초3) 자료를 SPSS 26.0과 Process Macro 4.1을 적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직렬다중매개 분석을 하였다. 직접효과 분석결과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또래애착과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분석결과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를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교사-아동 갈등관계, 행복감,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직렬다중매개효과

I. 서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며 행복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 개인 행복에 해당하

* 본 논문은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1)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 교신저자: 대전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아동심리교육전공 부교수

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염유식·성기호,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2023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3개년 대비 가장 낮은 결과치를 보였다(정익중·이수진·정수정 외, 2023). 또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김도희와 안다혜(2023)의 종단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아동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이며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행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지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으로 재개념화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도희·나원기·Cao, 2022; 김도희·안다혜, 2023).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2002)에 따르면, 행복의 기준은 인간 개개인의 견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써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와 같은 측정 가능한 핵심요소를 통해 평가 가능하고 양육과 교육을 통해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Seligman, 2011; 2018). 우리나라 유아 대상 행복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복 관련 이론과 인식 및 실태조사와 같은 기초조사 보다는 행복 관련 변인 및 측정과 평가, 행복증진을 위한 활동과 같은 실천적인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최효정, 2022). 이는 유아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유아교육정책 수립 및 각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도남희·배운진·김지예, 2014). 그러나 유아가 성장하여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아동의 행복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행복은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은 유아기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보다 강조된다(김명희, 2011). 행복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구축한 긍정심리학에서도 행복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Keyes, 2002; Lomas, Waters, Williams et al., 2021)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 관련 변인 간 관계는 보다 정교하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행복 관련 연구들은 행복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는 양적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개인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들로 구분하였다(강영하, 2020; 정이나, 2015; Galinha & Pais-Ribeiro, 2012). 또한, 아동의 행복은 개인 변인과 같은 내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외적 요인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은 행복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해 활용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행복과 관련된 관련 변인 간 관계 연구들을 통해 행복 관련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령기 아동들은 가정을 벗어나 학교와 같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실제 교사와 아동의 친밀한 관계는 학교 생활 전반의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를 예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Pianta, 2001) 친사회적 행동, 그릿, 학업성취와 같은 발달과 학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장희선, 2023; 정영선·박경현, 2022; O'Connor & McCartney, 2007). 이처럼 교사와 또래는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관계의 질에 따라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복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개인적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와 관련된 변인은 그 비중이 적게 연구되어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강영하, 2020).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저학년에 비해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대인관계가 점차 심화되어 사회성이 강조되는 시기(김명희, 2011; 하지원·김세영, 2023)임을 고려하여 관련 변인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신혜영·김지현, 2016; 이소현·김윤희, 2020)을 살펴보면 교사와 아동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수행능력을 통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교사와 아동의 갈등 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와 아동 간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아동의 행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다양한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인 간 관계 규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 또래, 교사와의 대인관계 특성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사와의 친밀 혹은 갈등관계는 또래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Hughes와 Im(2016)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와의 관계가 또래 간 반감과 같은 개인 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령기 아동은 가정을 벗어나 학교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아동은 성장할수록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보다 수준이 비슷한 또래와 보다 견고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은 점차 감소하고 또래에 대한 정서적 관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래애착은 학교적응과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이재인·김춘경·한은수, 2014; Demanet & Van Houtte, 2012),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적고 행복감 또한 높게 느낄 수 있다(신혜영·김지현, 2016). 특정 대상과 맺게 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인 애착은 삶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며 그 대상이 부모에서 교사 혹은 또래로 바뀔지라도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상호호혜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경험들로 하여금 아동은 보다 자신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또래애착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과 안녕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혹은 또래 간 관계의 경로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행복감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초등학교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초등시기에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로(Mack, 1983)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 측면의 개인 내적 요인이다(이소현·김윤희, 2020).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을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특히, 생애 초기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내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동이 속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견고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라는 보다 큰 체계 속에서 교사나 또래와 같은 의미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이 기대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신혜영과 김지현(2014)은 또래애착이 높고 안정적인 때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행복감 점수가 높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소현과 김윤희(2020)는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춰 아동의 행복감을 낮출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라는 맥락 안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매개하며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행복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행복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였고,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변인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긍정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행복, 나아가 주관적 안녕을 위한 적절한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아동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교사-아동의 갈등관계와 아동 행복감 사이 경로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는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 아동 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2017년 10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7년 10차 자료는 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시점의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회성이 보다 강조되는 시기(김명희, 2011)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차 자료에서 주요 변인과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총 63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남아 326명(51.5%), 여아 307명(48.5%)이다.

2. 연구도구

가.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Pianta(2001)가 개발한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통해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를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친밀(7문항), 갈등(8문항)의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점 Likert-type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영역의 8문항만을 사용하였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갈등적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이)는 나에게 쉽게 화를 낸다.' 등이 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나. 또래애착

아동의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총 25문항 중 일부를 한국어

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에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type 척도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이)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또래애착의 부정적 차원을 측정하는 소외(예,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드니?)에 해당하는 3개 문항을 역채점하여 아동의 적응적 또래애착을 구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또래애착의 신뢰도는 .69로 나타났다.

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MCS(2008)에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10문항을 초등학생에 적합하게 5문항으로 축소하고, 응답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문항 내용 일부에 수정을 가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등이 있고, 4점 Likert-type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라.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Middle Childhood Survey(MCS)(2008)가 개발한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다. MCS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자기보고척도를 설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은 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어때니?’ 등과 같은 문항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로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는 4점 Likert-type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SPSS 21.0을 이용해 주요 변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가정 만족여부를 확인하였다. 주 연구문제인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각각의 매개효과,

그리고 두 매개변인(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1 model 6을 적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Model 번호를 설정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변인 간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 등의 구조적 관계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 모형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으나 아동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경우 문항 수와 관련되어 측정 변인 2개 정도로 잠재 변인을 구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모형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보다 경로모형 분석이 제안되기에(Kline, 2016)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이때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신뢰구간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영향에 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자료와 상관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또래애착($r=-.135$, $p<.01$), 자아존중감($r=-.083$, $p<.05$), 행복감($r=-.165$, $p<.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r=.519$, $p<.01$), 행복감($r=.560$, $p<.01$)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행복감($r=.567$,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

(N=633)

| | 1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 2 또래애착 | 3 자아존중감 | 4 행복감 |
|----|---------------|--------|---------|-------|
| 1 | 1 | . | . | . |
| 2 | -.135** | 1 | . | . |
| 3 | -.083* | .519** | 1 | . |
| 4 | -.165** | .560** | .567** | 1 |
| M | 1.40 | 3.14 | 3.47 | 3.30 |
| SD | 0.58 | 0.53 | 0.43 | 0.46 |
| 왜도 | 2.19 | -0.59 | -1.10 | -0.89 |
| 첨도 | 5.81 | 0.43 | 1.28 | 1.05 |

* $p<.05$, ** $p<.01$

2.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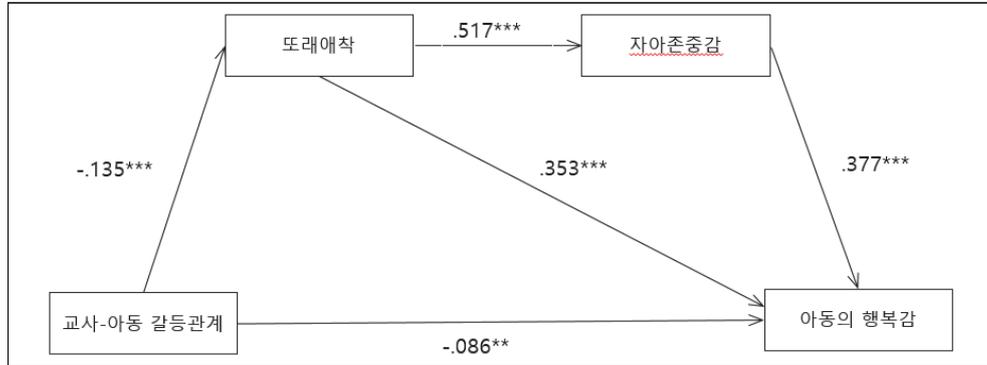
첫 번째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663, p<.001$).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해($\beta=-.135, p<.001$), 교사-아동의 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또래애착이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또래애착의 영향을 각각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F=116.187, p<.001$). 교사-아동의 갈등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고($\beta=-.013, p>.05$), 아동의 또래애착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beta=.517, p<.001$)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55.350, p<.001$). 교사-아동의 관계가 갈등적일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낮고($\beta=-.086, p<.001$), 또래애착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높고($\beta=.353,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beta=.377, p<.001$)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고,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교사-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

(N=633)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신뢰구간 | |
|-------------------------------------|------------------------------------|-------|------|---------|-----------|-------|-------|
| | | | | | | 하한 | 상한 |
| 또래애착 |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 -.123 | .036 | -.135 | -3.415*** | -.194 | -.052 |
| | $F=11.663, p<.001, R-Squared=.018$ | | | | | | |
| 자아존중감 |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 -.010 | .025 | -.013 | -.390 | -.060 | .040 |
| | 또래애착 | .417 | .028 | .517 | 15.047*** | .363 | .472 |
| $F=116.187, p<.001, R-Squared=.270$ | | | | | | | |
| 행복감 |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 -.067 | .024 | -.086 | -2.813** | -.114 | -.020 |
| | 또래애착 | .302 | .030 | .353 | 9.936*** | .243 | .362 |
| | 자아존중감 | .399 | .038 | .377 | 10.651*** | .325 | .473 |
| $F=155.350, p<.001, R-Squared=.426$ | | | | | | | |

** $p<.01$, *** $p<.001$



[그림 1] 연구모형 검증결과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또래애착의 신뢰구간에($B=-.048$, $95\%CI=-.066-.012$)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신뢰구간($B=-.005$, $95\%CI=-.028-.020$)에 0이 포함되어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차례로 투입한 결과 신뢰구간($B=-.026$, $95\%CI=-.037-.007$)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에 의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 구분 | B | SE | 신뢰구간 | |
|-----------------------------------|-------|------|-------|-------|
| | | | 하한 | 상한 |
| 교사-아동 갈등적 관계 → 또래애착 → 행복감 | -.048 | .014 | -.066 | -.012 |
| 교사-아동 갈등적 관계 → 자아존중감 → 행복감 | -.005 | .012 | -.028 | .020 |
| 교사-아동 갈등적 관계 → 또래애착 → 자아존중감 → 행복감 | -.026 | .008 | -.037 | -.007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아동의 갈등관계,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또래애착 및 행복감과 부적 관계가 있으며,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또래애착과 행복감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교사-아동간 갈등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낮고 행복감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미 앞서 이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들(신혜영·김지현, 2016; 이소현·김윤희, 202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교사와 또래는 학교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미있는 타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와 같은 전반적인 학교생활뿐 아니라 나아가 삶의 만족과 같은 행복과도 관련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Galinha와 Pais-Ribeiro(2012)의 연구에서는 교사, 또래와 같은 개인간 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내 요인이 주관적 안녕의 예측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즉 변인간 관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므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관계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행복감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들(김도희·안다혜, 2023; 성다점·김춘경, 2015; 신혜영·김지현, 2016; 이재경·조혜정, 2012)과 맥을 같이 한다. 학령기 아동에게 또래는 성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또래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은 부모에게서 느끼는 애착과 같이 감정적 지지의 역할을 한다. 아동은 점차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한 관계는 우정과 같이 특정 또래와 일대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우정과 같은 강력한 정서적 유대관계는 아동에게 있어 친밀하고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갈등해결의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도 있다(Newcomb & Bagwell, 1995). 그러므로 안정적인 또래애착은 아동이 자신을 가치있게 느끼는 자아존중감, 나아가 삶의 만족과 같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추가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김유현·강옥려, 2019; 심현숙·박경빈, 2021; 윤미승·김경은·윤정진, 2022; 조혜영·권정윤, 2022)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을 위해 관련 변인들과 연결되어 매개적 역할을 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유현과 강옥려

(2019)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들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족, 학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적 요인들을 투입하였을 때에도 아동의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사-아동의 갈등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아동의 갈등관계가 높으면 유아의 또래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춰 아동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접경로와 관련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교사-아동 간 갈등관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교사-아동 간 갈등관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아동간 갈등이 아동의 행복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조직 및 집단 차원에서의 갈등은 둘 이상의 행동 주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이해나 목표가 서로 다를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은 긴장을 유발하여 부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에 교사-아동간 갈등 보다는 친밀하고 애착 관계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교사의 갈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인과관계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그 자체의 복잡한 관계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고(주영호, 2017),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심임섭, 2016).

교사와 아동의 갈등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원만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 간 간접 경로와 관련하여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아동의 또래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행복감이 낮아지는 간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게 지적 받고 혼나는 아동은 교사와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또래에게 배척 받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감이 낮을 수 있다. 반면, 교사-아동 갈등관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춰 행복감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는 교사와의 갈등이 아동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 느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가 자기 가치감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환경이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밝힌 윤미승·김경은·윤정진(2022)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심리적 학교환경이란 교사나 또래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과 지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와 아동 간 갈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와 아동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교사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교사와 아동의 갈등 관계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이미 수집 완료된 패널 데이터의 아동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배제하였다. 행복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보다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각 변인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아동과 교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되어 응답자의 반응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복과 관련된 측정과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와 또래관계에 대한 질적 평가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검사나 질적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변인 간 관계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설문 방식에 기초하여 관계성을 도출하였기에 종단연구나 실험연구와 같은 연구 설계 방법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아동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교사-아동의 갈등관계는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에 순차적 매개를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고 정치적 이슈로도 발전되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의 행복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김도희·안다혜, 2023; 염유식·성기호, 2021; 정익중·이수진·정수정 외, 2023). 아동의 행복감은 연구의 목적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려지고 행복감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동의 행복은 아동이 처한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행복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서는 2017년 아동균형생활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행복지수'를 개발하고 2017년, 2020년, 2021년 3개년의 아동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정익중·이수진·정수정 외, 2023). 아동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아동이 혼자 밥을 먹는 여부를 관계의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행복감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양적으로 수치화하여 주관적 안녕을 객관화 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감 측정을 위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도구의 개발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교 구성원의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특히, 교사와 아동의 갈등관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사와 아동간 갈등의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정혜영, 2021). 최근 들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으로 야기된 인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아동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동의 인권 및 아동학대와 맞물려 교사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와 아동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정신적 건강에 관한 상담 및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사들간의 동료멘토링이나 교사전문학습공동체를 통해 돌봄과 회복을 하는 공동체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디서 전문적 발달을 위한 자원을 찾는지, 어떻게 아동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행동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며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De Stasio, Fiorilli, Benevene et al., 2017).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행복을 위해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시기는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대인관계가 점차 심화되어 사회성이 강조되는 시기(김명희, 2011; 하지원·김세영, 2023)로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행복감과도 직결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친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학교 정책가들은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교사-아동의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

소현·김윤희, 2020). 교사와 아동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에게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행복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교사와 아동 모두 존중받는 문화 형성은 교사와 아동간 갈등을 원만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하(2020). 초등학생의 행복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초등상담연구, 19(1), 29-47.
- 김도희·나원기·Cao PingPing(2022). 긍정 심리학의 연구 동향: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1), 653-670.
- 김도희·안다혜(2023). 아동의 행복과 협동심의 중단적 상호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 대한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4), 189-206.
- 김명희(2011). 아동·청소년 사회성 개발과 상담. 파주: 교문사.
- 김유현·강옥려(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행복을 예측하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아동센터 요인 탐색, 한국초등교육, 30(1), 191-204.
- 도남희·배운진·김지예(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성다점·김춘경(2015). 초등고학년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4), 129-142.
- 신혜영·김지현(2016). 어머니애착, 또래애착 및 교사와의 갈등관계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한국생활과학지, 25(5), 545-558.
- 심임섭(2016). 복잡성 연구의 문제의식과 교육 실천에의 적용. 교육비평, 38, 238-269.
- 심현숙·박경빈(2021). 아동이 지각한 창의적 학교 환경과 시간사용만족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596-608.
- 염유식·성기호(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이소현·김윤희(2020). 교사-아동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수행능력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아동교육, 29(3), 159-177.
- 이재경·조혜정(2012).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41-71.

- 이재인·김춘경·한은수(2014).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간의 관계 구조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345-367.
- 윤미승·김경은·윤정진(2022).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 환경 및 자아존중감과 행복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31(3), 317-329.
- 장희선(2023).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및 교사관계의 변화 중단연구. *교육문화연구*, 29(2), 507-528.
- 정영선·박경현(2022).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교사-아동 관계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그림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3(4), 549-552.
- 정이나(2015).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익중·이수진·정수정·이원지(2023). 202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 서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정혜영(2021).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의 갈등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교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8(1), 293-322.
- 조혜영·권정윤(2022). 부모의 학교생활 및 학업 관심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학교적응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201-213.
- 주영효(2017). 학교 조직 이해의 새로운 틀: 비선형 자기조직화. *교육행정학연구*, 35(2), 275-300.
- 최효정(2022). 유아 행복연구 동향분석: 유아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37, 91-114.
- 하지원·김세영(2023). 학령초기 아동-어머니의 애착안정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강도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7(2), 289-308.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De Stasio, S., Fiorilli, C., Benevene, P., Uusitalo-Malmivaara, L., & Chiacchio, C.(2017). Burnout in special needs teachers at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Investigating the role of personal resources and work wellbe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54(5), 472-486.
- Demant, J., & Van Houtte, M. (2012). School belonging and school misconduct: The differing role of teacher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 499-514.

- Galinha, I. C., & Pais-Ribeiro, J. L.(2012). Cognitive, affective and contextual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2(1), 34-53.
- Hughes, J. N., & Im, M. H. (2016).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peer disliking and liking across grades 1-4. *Child development*, 87(2), 593-611.
- Keyes, C.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207-222.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Guilford Press.
- Lomas, T., Waters, L. Williams, P., Oades, L. G., & Kern, M. L. (2021). Third wave positive psychology: Broadening towards complexit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6(5), 660-632.
- Mack, J. E. (1983). Self-esteem and its development: An overview. *The Development and Sustainance of Self-esteem in Childhood*, 1-42.
-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2023년 5월 31일 검색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5).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2), 306.
- O'Connor, E., & McCartney, K. (2007). Examining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achievement as part of an ecological model of develop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4(2), 340-369.
- Pianta, R. C. (2001).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Simon and Schuster.
- Seligman, M. (2011). *Flourish*. New York, NY: Free Press.
- Seligman, M. (2018). PERMA and the building blocks of well-be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3(4), 333-335.

- 논문접수: 4월 8일 / 수정본 접수 5월 17일 / 게재 승인 6월 13일
- 교신저자: 이해원, 대전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아동심리교육전공 부교수, lhw419@daejin.ac.kr

Abstract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and Children's Happiness

Jaeun Jung and Hyewon Le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verify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child conflict and children's happiness. The data of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10th wave in 2017(3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erial multiple mediation analysis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4.1. First, the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had a negative effect on peer attachment and happiness, whereas peer attach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self-esteem in turn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Second, peer attachment mediated the effect of the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on happiness. Third, the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was found to affect happiness through serial multiple mediation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ising strategies finding ways to improve children's happines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related factors.

Keywords: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Happiness, Peer attachment, Self-esteem,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